

김정은 시기 식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식품소비를 중심으로*

김관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는 어떻게 변모했으며, 식생활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는 주식인 쌀, 옥수수 등 곡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 영양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곡물 위주에서 벗어나 부식과 간식, 기호식품으로 식생활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변화 원인은 식품공급 측면에서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입이 증대되면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품소비의 환경 변화 측면을 보면, 비공식경제인 시장화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구매력을 향상시켜 식품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소비가 증대된다는 이론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된다면 다양한 식품소비로 인해 식생활이 더욱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량 산정과 식량문제 해결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김정은, 식생활, 식품소비, 식품공급, 소득증대

* 본 논문에 대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부장.

1. 서론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다음의 문장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식생활은 비단 주식용 곡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채소·고기·과일은 물론 가공식품, 밖에서 사 먹는 식사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부족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식량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 및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에 의해 먹을거리 개념이 주식 위주에서 부식 및 기호성 먹을거리로 넓어지고 있다”¹⁾

북한은 김일성 시기부터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빛나게 실현”을 위한 식의주를 당국의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부를 만큼 먹는 문제를 제일 중요시 여겼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식량배급에서 백미 대 잡곡의 비율이 뒤바뀌는 등 식량난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김일성은 1985년 10월 정무원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옷이나 집 같은 것은 부족하여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의식주라는 말을 마땅히 식의주라고 고쳐 쓰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할 만큼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소비량을 추정

1) 김소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7쪽.

하여 식량부족량을 발표하고 있다. 남한의 농촌진흥청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식량생산량을 추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쌀, 옥수수, 보리·밀 등 곡물생산량만 추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집권 초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식량배급제와 사회급양을 통해 당국이 주도적으로 식생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이런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배급제와 사회급양이 붕괴되자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했다.

남한은 2009년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²⁾을 시행했는데 여기서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식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북한은 식생활을 “음식재료의 선택과 저장 및 소비, 음식의 조리 가공과 그릇에 담기, 상차림과 식사방식, 식기류와 부엌세간, 식사예절 등 먹는 것과 관련한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³⁾ 그리고 “식생활은 나라와 민족마다 기후, 토질, 민족성, 계급관계, 종교 등 자연지리적 및 사회역사적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과정에 고유한 관습으로 형성되게 된다”⁴⁾고 했다. 이와 같이 남북의 식생활 정의는 매우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생활교육지원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008&ancYnChk=0#0000>(검색일: 2023년 8월 13일).

3) 조대일,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01 민속학편: 조선 식생활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5), 16쪽.

4) 『조선대백과사전 프로그램: 식생활』(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조선대백과사전프로그램은 조선대백과사전 전 30권을 컴퓨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전자사전 프로그램이다.

정은이 집권한 뒤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는 어떻게 변모했으며, 이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식량부족량 산정과 식량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북한의 식생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최은경·조미숙⁵⁾은 『조선여성』 잡지의 1999~2017년 식생활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의 식생활 특징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식생활 관련 기사는 식품과 영양 분야 70.4%, 식생활 풍습 분야 17%, 식량 증산 분야 12.6%로 나타났다.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량증산을 강조했다. 식량증산 원천으로 토끼, 양식 물고기, 닭, 염소, 버섯, 감자, 해바라기 등을 언급했고, 육류의 경우 곡물을 사용하지 않고 풀로 사육할 수 있는 토끼, 닭, 염소 등의 가축을 중점적으로 사육했다.

조성은 외⁶⁾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가계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항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가계의 소득증가, 특히 비공식 소득증가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시장을 통해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데, 시장가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기본 식량 외에도 부식, 식음료 등에서 북한 주민의 소비수준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육류 및 육가공 소비와 수산물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 최은경·조미숙, “『조선여성』을 통해 본 북한의 식생활 연구: 1999~2017년 식생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3호(2019), 255~267쪽.

6) 조성은 외,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8월호(2019), 6~18쪽.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사회변동 2012~2020 (2022)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생활은 김정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질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식생활은 양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식생활과 관련된 국내 통계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식생활의 변화 원인을 식품공급 측면과 식품소비 환경변화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3) 연구 자료 및 범위

북한에서 식량과 식료품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와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조사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자료 축적이 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사회변동 2012~2022』(2022)와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2022) 등의 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식품소비 변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2023년까지로 한다.

북한의 식품공급 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활용했다. 통계청은 북한의 경제·사회상에 대한 학술·연구 등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재분류하여 1995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 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 금액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KREI북한농업기반동향』을 참고했고,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북한의 식품가공공업에서 제조되고 있는 식료품의 제품명, 생산단위와 종류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북한의 언론매체인 『조선의 오늘』(2016, 2017), 『로동신문』(2019)에 나타난 기사를 발췌하여 김정은 시기 식당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식품소비 변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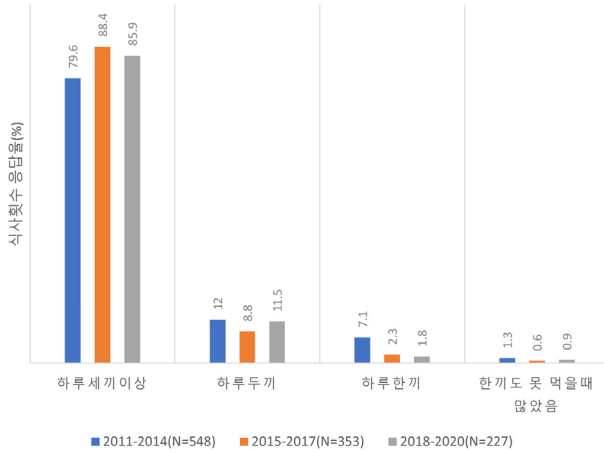
1) 주식

북한에서 “식료품은 식생활 습관상 주식물, 부식물, 조미료, 향신료, 간식품, 기호식품류로 구분하는데, 주식물은 식사의 기본을 이루는 식료품으로 생활동력의 근원으로 되고 있으며, 계속 먹어도 싫증나지 않는 것”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하루 식사 횟수 설문조사⁸⁾를 나타낸 것이 <그림 1>과 같다.

7)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프로그램: 식료품』(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8)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36쪽.

〈그림 1〉 탈북 시기에 따른 하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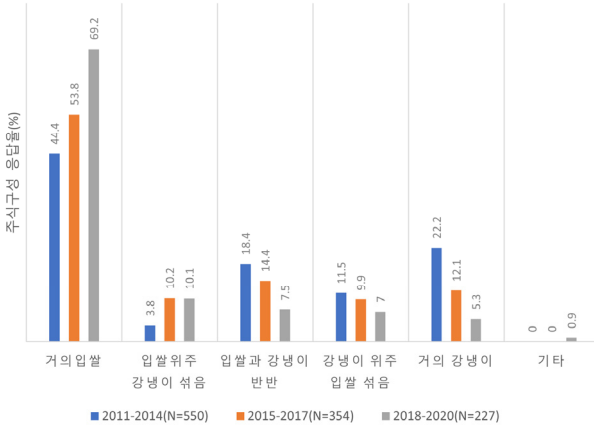


자료: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37쪽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김정은 집권 10년 중 초기에는 ‘하루 세 끼 이상 섭취’가 2011년부터 2014년에는 79.6%, 중기인 2015년부터 2017년에는 88.4%, 후기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85.9%로 나타났고, ‘한 끼도 못 먹을 때 많았음’은 2% 미만대로 나타나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탈북 시기에 따른 주식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주식을 ‘거의 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김정은 초기 44.4%에서 2018~2020년에는 69.2%로 24.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의 ‘강냉이’로만 된 주식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초기 22.2%에서 2018~2020년 5.3%로 16.9%까지 감소했다.⁹⁾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사 횟수와 주식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쌀 소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강냉이로만 된 주식을 섭취하는 인구

9)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37쪽.

〈그림 2〉 탈북 시기에 따른 주식 구성



자료: 『북한사회변동 2012-2020』, 38쪽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는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¹⁰⁾에 의하면 하루 식사량과 관련하여 ‘하루 세 끼 이상’ 먹었다는 응답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고, ‘하루 두 끼’ 23.3%, ‘하루 한 끼’ 8.0%, ‘하루 한 끼 미만’이 1.3%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전 탈북한 경우 ‘하루 한 끼’ 20.0%, ‘하루 한 끼 미만’이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반면,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주식류의 소비 경험에 따르면 ‘쌀(입쌀)’의 소비 경험이 70.0%로 가장 높았고, ‘강냉이’ 53.3%, ‘국수’ 28.0%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추정해 보면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하루 식사량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주식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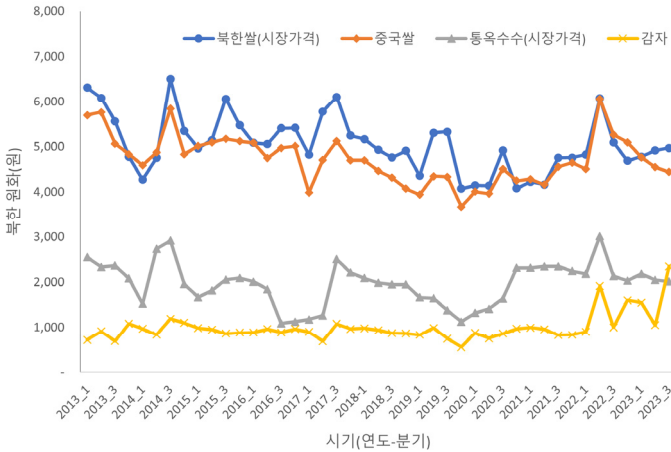
10) 김예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보건복지포럼』, 통권 310호 (2022), 40~42쪽.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¹¹⁾에 따르면 식생활 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73.1%가 1일 3회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에는 비율이 89.7%로 증가했고, 특히, 2016~2020년에는 91.9%가 1일 3회 식사했다고 응답했다. 식생활 수준에서도 지역과 정치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는데, 1일 3회 식사를 한다는 응답 비율은 평양이 86.9%인 반면 접경지역 73.9%, 비접경지역 65.8%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1일 3회 식사를 했다는 응답 비율은 농장원 60.5%, 노동자 71.5%인 데 반해 행정일꾼, 보안원, 군인과 같은 직종은 87.8%가 1일 3회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장원이 1일 3회 식사를 했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이유는 군인, 노동자와 같은 정치사회적 지위에서 하순위에 위치해 있고, 북한 이탈주민 중 농장원의 비율이 낮아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들의 주식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곡물류의 시장가격 안정세와 연관이 깊다. <그림 3>은 곡물류의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kg당 북한 쌀의 평균 시장가격(2013~2023년)은 5,000원 선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년 1분기에는 6,300원 선, 2017년 3분기와 2022년 2분기 6,000원 선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가격을 보였다. 이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과 수입이 감소했으나, 북한 당국이 시장에 적극 관여하여 쌀값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은 주식류에 대한 생산단위 및 주원료를 나타낸 것으로 강녕

11)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서울: 통일부, 2024), 164쪽.

〈그림 3〉 북한의 곡물류의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



주: 각 품목의 단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kg당 가격이다.
 자료: 『KREI북한농업동향』 토대로 필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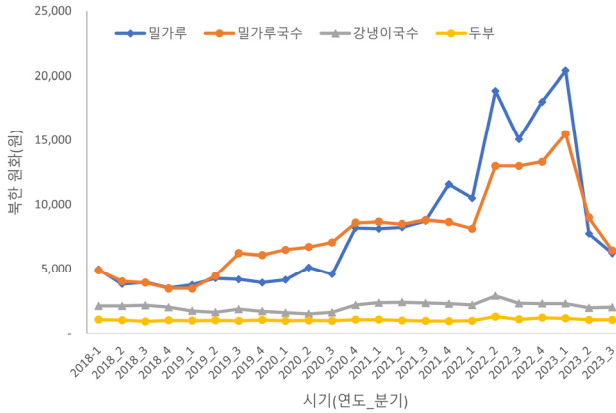
〈표 1〉 주식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

제품명	생산단위	주원료
강이국수	평양강냉이공장	강냉이
강냉이우동	평양강냉이공장	강냉이
강냉이쌀	평양강냉이공장	강냉이
보양죽	침단기술개발교류소	갯, 호두, 가래, 개암, 살구씨, 찹쌀가루, 소금
갯죽	침단기술개발교류소	갯, 대추, 찹쌀가루, 소금

자료: 조선의 무역.

이를 주원료로 하여 옥수수쌀, 국수, 우동 등 식료기공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쌀밥 이외의 주식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단위인 침단기술개발교류소는 인민생활 향상과 인민경제 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기관 고유의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식료품인 죽을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먹

〈그림 4〉 북한의 가공식품류 가격



주: 밀가루, 밀가루국수, 강냉이국수의 단위는 1kg이다. 두부의 단위는 1모(500g)이다.
 자료: 『KREI 북한농업동향』(2023) 토대로 필자 재작성.

거리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림 4〉는 북한의 가공식품류 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강냉이국수의 평균가격은 2,000원/kg로 밀가루 국수 평균가격인 8,100원/kg보다 4배나 저렴해 주민들이 주식 대용으로 애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식료품인 밀가루 국수가 원재료인 밀가루보다 더 저렴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밀가루 10kg에 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면 약 13kg의 밀가루 국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3kg의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으로부터 밀가루 수입량이 크게 증대하였으나, 코로나-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자 2023년 가격이 20,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3년 2분기부터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합법적·비합법적인 수입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2) 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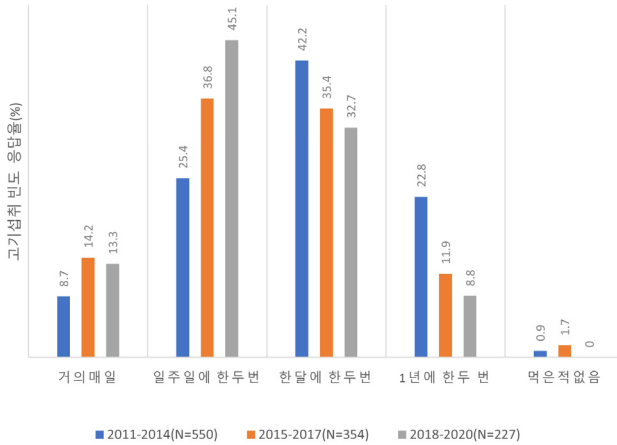
고기·생선·달걀·콩류는 단백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의 주요 공급 식품이며, 열량도 공급한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고기·생선·달걀·콩류는 매일 3~4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¹²⁾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기 섭취 횟수 설문조사¹²⁾ 결과, 고기를 ‘거의 매일’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1~2014년 8.7%에서 중기인 2015~2017년에는 14.2%로 증가했으며, 후기인 2018~2020년에는 13.3%로 집권 중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권 초기보다는 고기 섭취가 중기와 후반부로 갈수록 4.6~5.5%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섭취’하는 응답 비율은 집권 초기 25.4%, 중기 36.8%, 후기 45.1%로 집권 초기보다 후기에 약 19.7%의 고기 섭취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먹은 적 없음’의 비율은 집권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고기 섭취의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¹³⁾에 따르면 탈북 직전 1년의 육류 소비 경험률은 72.7%이며, 세부 종류별로는 ‘돼지고기’ 91.7%, ‘물고기류’ 76.1%, ‘닭고기’ 33.9%, ‘토끼고기’ 28.4%, ‘소고기’ 8.3%로 나타났다. 육류는 대체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이 74.1%였고, 닭고기는 45.9%로 나타났다. 토끼고기는 74.2%가 직접 키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 선대부터 김정은 시기에 이르

12)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36쪽.

13) 김예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44쪽.

〈그림 5〉 탈북 시기에 따른 고기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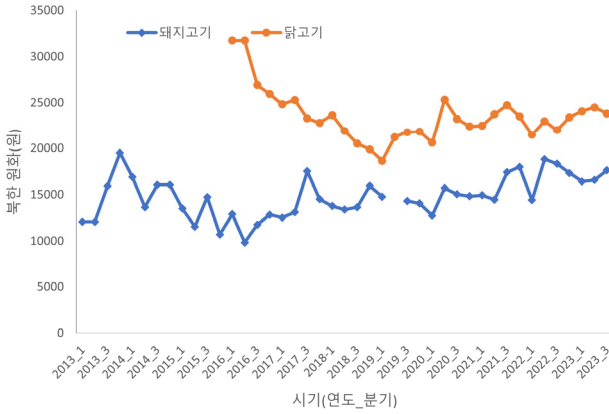


자료: 『북한사회변동 2012-2020』, 41쪽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제작성.

기까지 초식동물인 토끼 기르기를 장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6〉은 축산물의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닭고기(2016~2023년 평균)가 22,500원/마리, 돼지고기(2013~2023년 평균) 15,500원/kg으로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생산량이 많아 육류 소비에서 돼지고기 섭취 경험이 많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닭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김정은은 집권 이후 닭공장 건설을 강조했고 2024년 초에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더 많은 고기·알 인민에게¹⁴⁾’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닭고기 가격을 안정시켜 주민들이 육류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여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2〉는 육류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를 나타낸 것으로 식료공장에서 다양한 육류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간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8일.

〈그림 6〉 축산물의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



자료: 『KREI북한농업동향』(2023) 토대로 필자 작성.

〈표 2〉 육류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

제품명	생산단위	주원료
햄	선경종합식료공장	5종류, 돼지고기, 조미료
쏘세지	선경종합식료공장	4종류, 돼지고기, 후추가루, 사탕가루
강냉이맛쏘세지	선경종합식료공장	돼지고기, 강냉이,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 사탕가루, 마늘

자료: 조선의 무역.

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간식

(1) 빵·과자류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¹⁵⁾에 따르면 빵·과자류의 탈북 직전 1년의 소

15) 김예슬·조정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46쪽.

〈표 3〉 빵·과자류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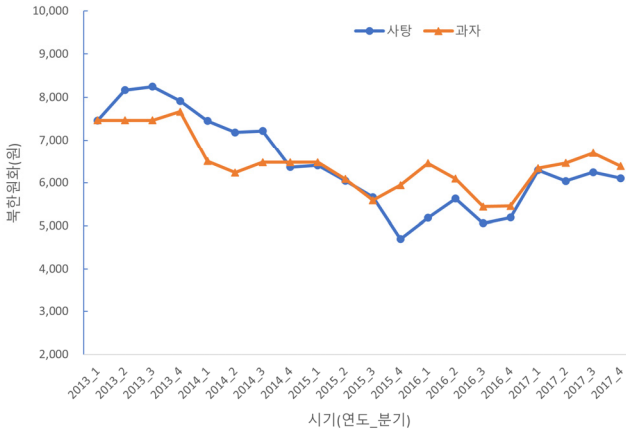
제품명	생산 단위	주원료
불고기맛튀기	운하대성무역회사	밀가루, 사탕가루, 식용기름, 불고기양념가루
과일단설기	운하대성무역회사	밀가루, 사탕가루, 닭알, 빠다, 말린도마도, 말린포도
바나나향사탕	운하대성무역회사	사탕가루, 물엿, 바나나향
코코아칩과자	운하대성무역회사	밀가루, 사탕가루, 빠다, 우유가루, 코코아가루, 코코아향
단벳와닐라에스키모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우유가루, 식물성기름, 사탕가루, 닭알, 단벳즙, 와닐라즙

자료: 조선의 무역.

비 경험률은 68.7%이며, 세부 종류별로는 ‘떡’ 85.4%, ‘기타 빵’과 ‘사탕과자’ 각각 78.6%, 스낵과자/비스킷 63.1%, 케이크 43.7%의 순이었다. 대체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이 60.9%로 제일 높았고, ‘떡’ 70.8%, ‘기타 빵’ 62.3%로 직접 만들었다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빵·과자류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은 14,715원(북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쌀, 옥수수의 곡류 위주의 주식과 함께 간식인 빵·과자류를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 구입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수준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가 계급 간, 계층 간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빵·과자류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를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주원료도 여러 종류가 첨가되고 있었다. 주원료 중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대표적 예로 밀가루, 사탕가루 등이 있다.

〈그림 7〉은 사탕 및 과자의 시장 평균가격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인

〈그림 7〉 사탕 및 과자의 시장 평균가격



자료: 『KREI북한농업동향』(2017) 토대로 필자 작성.

2013년에는 7,000~8,000원 선이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가격은 낮아져 평균가격은 약 6,400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원인은 빵·과자류 등 가공식품류의 대량생산으로 단위당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성 공급이 증가했거나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사회주의 경쟁으로 판매 증가를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낙농품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¹⁶⁾에 따르면 낙농품의 탈북 직전 1년의 소비 경험률은 63.3%이며, 세부 종류별로는 달걀 91.6%, 염소 젖 26.3%, 우유 8.4%, 유산균발효유 6.3%의 순이었다. 이런 낙농품은 배급이 거의 없었고, 대체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다. ‘염소 젖’은 시장에서 구매, 직접 키우거나 이웃 또는 친

16) 김예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45쪽.

〈표 4〉 낙농품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

제품명	생산 단위	주원료
요구르트압가루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흰쌀, 우유가루, 요구르트가루, 식물성기름, 젖산균증식인자, 비타민, 10여 종의 광물질
흰쌀압가루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흰쌀, 우유가루, 식물성기름, 비타민, 10여 종의 광물질, 타우린, 콜린, 메티오닌
영양압가루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흰쌀, 우유가루, 식물성기름, 13가지 비타민, 수소인산칼시움, 레몬산나트륨, 류산마그네시움, 류산망간, 류산동, 류산이연, 요드산카리

자료: 조선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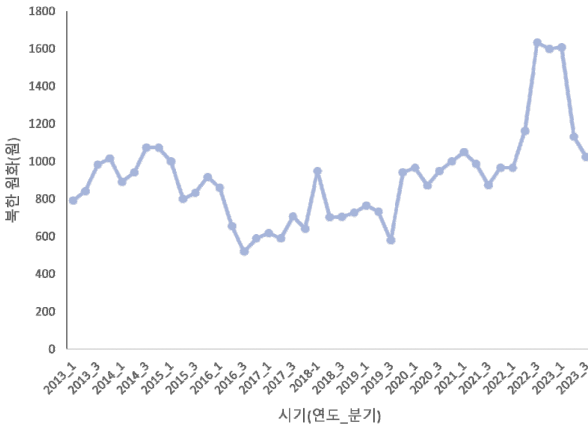
지로부터 얻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2.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는 낙농품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을 위한 제품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어린이 식품공장 자체 원료기지의 조성¹⁷⁾과 ‘어린이식료품의 생산과 수요를 밀착시키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 개별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영양학적 요구대로 어린이식료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 것’¹⁸⁾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류가 생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달걀의 시장 평균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가격은 912원/알로 나타났지만 2022년 3, 4분기에는 1,600원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3분기에는 1,000원 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17) 최석을, “어린이식료품공장 자체원료기지의 조성,” 『경제연구』, 제4호(2019), 40쪽.

18) 최석을, “어린이 식료품의 공급을 통한 생산과 수요의 맞물림,” 『경제연구』, 제4호(2017), 34쪽.

〈그림 8〉 달걀 시장 평균가격



주: 달걀의 단위는 1알(55~60g)이다.
 자료: 『KREI북한농업동향』(2023) 토대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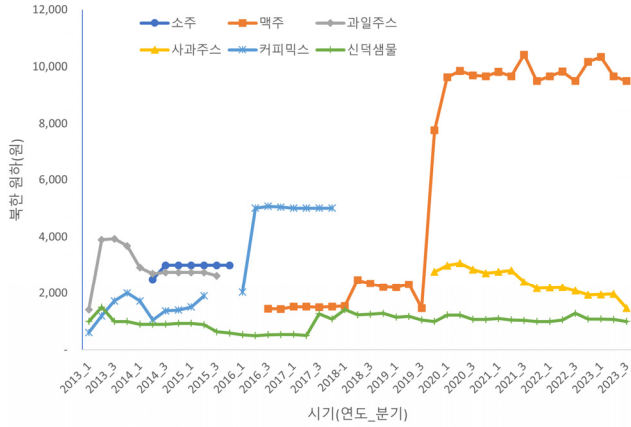
4) 기호식품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¹⁹⁾에 의하면 탈북 직전 1년의 소비 경험률은 46.0%이며, 세부 종류별로는 ‘소주’ 52.2%, ‘맥주’ 47.8%, ‘탄산음료’ 43.5%, ‘과일음료’ 39.1%, ‘기타 주류’ 26.1%, ‘커피’ 21.7%, ‘차’ 18.8%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의 구입은 대체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 비율이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주’의 직접 제조 경험은 41.2%, ‘기타 주류’는 62.5%로 가내수공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에서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 없이 만들어 시장에 팔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9〉는 기호식품의 시장 평균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소주는 조사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3,000원 선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초 과일주

19) 김예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45쪽.

〈그림 9〉 기호식품 시장 평균가격



주: 소주의 단위는 1병(360ml)이다. 맥주는 2019년 3분기까지는 룡성맥주, 2019년 4분기부터는 대동강맥주가 조사되었다. 단위는 모두 1병(500ml)이다. 과일주스와 사과주스, 샘물의 단위는 1병(500ml)이다. 커피믹스의 단위는 유리통 1병 기준이다.

자료: 『KREI북한농업동향』(2023) 토대로 필자 작성.

〈표 5〉 음료 가공식품류 생산단위 및 주원료

제품명	생산 단위	주원료
강냉이차	평양강냉이가공공장	강냉이수염, 강냉이
막걸리	운하대성무역회사	흰쌀, 사탕가루
맥주(1L)	운하대성무역회사	보리길금, 호프
망고단물	경흥은하수음료공장	망고즙, 사탕가루, 비타민C, 과일살, 레몬산

자료: 조선의 무역.

스 가격은 평균 2,900원이었고, 2019년 4분기부터 조사된 사과주스는 2,300원으로 나타나 과일주스보다 조금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맥주 가격이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맥주의 주원료가 되는 맥아를 수입하는 양이 2019년 1,327천 불에서 2020년 730천 불, 2021년 585천 불로 감소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샘플수요는 상수도 시설 낙후로 인한 악화 및 중산층 생수 선호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샘플 공장을 신설하거나 생산 능력을 확대 중이며 서비스 등 유통 및 소비체제도 구축²⁰⁾ 중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5) 외식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외식 빈도와 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소득 탄력성이다. 외식은 흔히 소득 탄력성이 높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 때 외식에 대한 지출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자주 외식을 하거나 더 비싼 식당을 찾게 된다.

그다음은 편의성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계는 시간 절약을 위해 외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외식은 식사 준비와 요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 주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가진 고소득 가계에서 선호될 수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욕구도 커진다. 외식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영양이다. 고소득 가계는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자주 찾을 수 있다. 이는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²¹⁾에서 탈북 직전 1년을 기준으로 외식한 적

20) 최재현, 『북한 샘플사업 현황 및 전망』(서울: KDB산업은행, 2020), 5~7쪽.

21) 김예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42~43쪽.

이 있다는 전체 응답 비율은 36.7%였고, 남성은 58.3%, 여성은 32.5%로 남성의 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사회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시기별로 외식 경험 여부는 2010년 이전에는 7.5%, 2010~2013년에는 16.0%, 2014~2017년에는 47.7%, 2018년 이후는 65.9%로 외식 비율이 증가해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외식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북 시기가 2014년 이후인 경우에만 ‘주 1회 이상’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생활수준이 ‘상층’이었던 경우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외식 비율은 40.0%’ 이상이었고, ‘주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도 60.0%로 높았다.²²⁾ 외식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n=55)를 기준으로 외식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이 34.5%로 가장 높았고, 3명 중 1명인 29.1%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외식을 하고 있어 북한 사회 내 외식 경험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나, ‘주 1회 이상’(27.3%) 빈번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북한 내 주민들의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외식 경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북한 주민들도 소득탄력성과 생활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민기채 외,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98호(2021), 50~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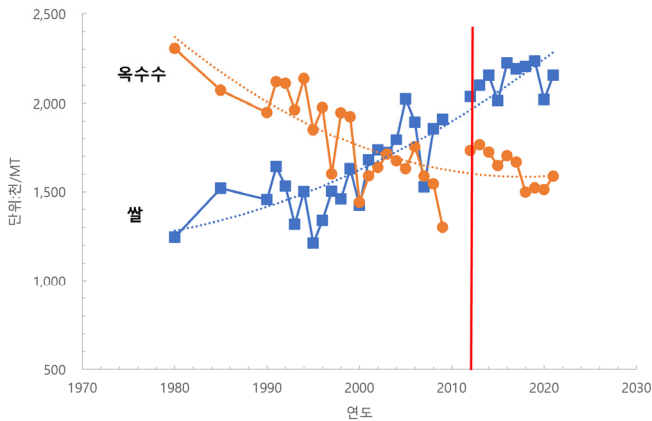
3. 식품공급 환경변화

1) 농산물의 국내 생산 변화

(1) 곡류

북한에서 주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곡류인 쌀과 옥수수에 대한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 10>이다. 쌀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인 2012년 이후에는 쌀 생산량이 증가되어 앞서 언급한 북한 주민의 식사 횟수와 주식의 구성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맥류는 2021년 160만 톤에서 2023년 220만 톤으로 60만 톤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5차 2일 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보리농사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제기하고 실천과

<그림 10> 곡류(쌀·옥수수)생산량



자료: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22)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업으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보리 파종 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²³⁾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농업정책의 효과로 농산물의 국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식사 횟수와 주식의 구성 등 식생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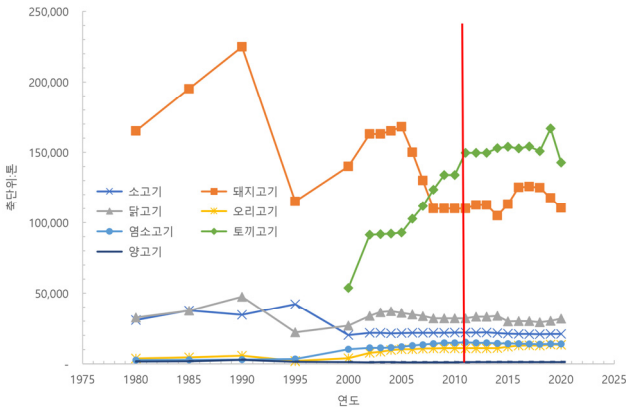
〈그림 11〉은 육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돼지고기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 생산과 기지 운영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²⁴⁾”라고 하면서 대규모 세포축산기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해 3월 16일 『로동신문』은 “농산·축산·수산을 3대 축으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농업전선은 인민생활 향상의 전초선”이라면서 “알곡생산을 늘려야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고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넉넉히 공급할 수 있으며 수산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 부문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업, 축산과 수

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24) “2015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그림 11〉 육류 생산량



자료: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22) 자료를 토대로 필자 그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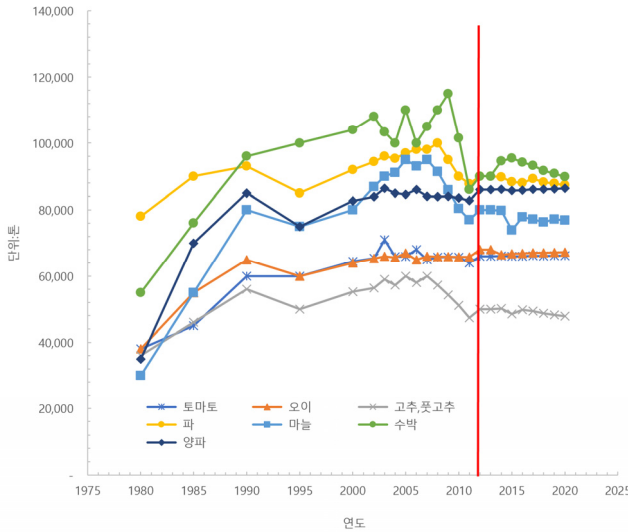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다. 또한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뜻깊은 올해에 고기와 알,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며 “종자확보와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을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김정은 집권 이후 육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축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대부터 토끼고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김일성 시기부터 외친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교시가 있었고,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서 초식동물인 토끼를 기업소나 농장에서 부업축산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닭고기,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축산물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채소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배급제도가 거의

〈그림 12〉 채소류 생산량 변화



자료: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22) 자료를 토대로 필자 그림 작성.

중단되면서 도시나 농촌에서 자가 경작을 통해 식량문제를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려는 행태가 증가했다. 북한 주민들은 텃밭, 패기밭, 소토지 등으로 불리는 토지에서 얻은 농산물은 개인이 소비하거나 장마당에서 상품으로 팔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과거와 달라지는데 이 중 하나가 채소의 섭취이다.²⁵⁾ 이런 채소는 양념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그림 12〉는 채소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박, 파, 마늘, 고추·풋고추의 생산량은 2011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하므로 재해성 이상기후에 민감하기 때문

25) 이순형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둘러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해 들은 북한의 생활문화』(서울: 파워북, 2020), 88쪽.

에 생산량이 불안정하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게 사시사철 푸른 남새를 제공하기 위해 남새온실을 확대했다. 특히, 대규모 온실로 함경북도 중평남새온실, 함경남도 연포온실, 최근에는 평양시민들의 채소공급을 위한 강동온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남새온실에서 재배되는 오이, 토마토의 생산량은 1990년도보다 김정은 시기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4)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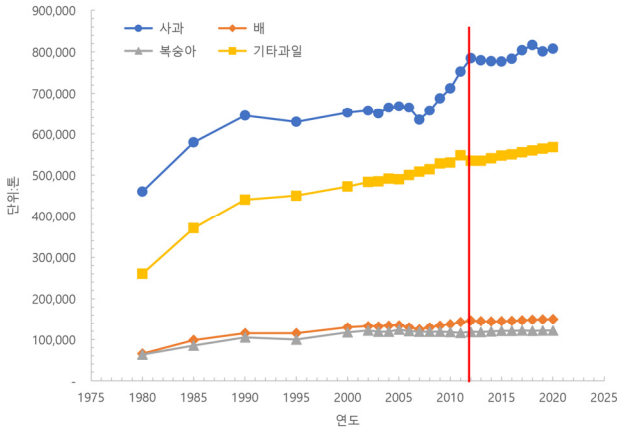
북한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와 배 그리고 복숭아이며, 전역에서 30여 종의 과일이 재배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복숭아의 생산량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많다.²⁶⁾ 사과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유효한 성분으로 카리(K), 식이섬유, 유기산(사과산, 구연산 등),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사과의 총생산량은 전체 과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사과 생산 단지로 과일군이 있다. 과일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지면적의 70% 이상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대 과일 생산지이며 북한 전체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⁷⁾ 그리고 함경남도 북청군 사과²⁸⁾가 유명한데, 북청군은 2013년 북청농업개발구로 지정되었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와 기타과일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배와 복숭아는 2012년

26)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files/anal/ANL011/ANL011_TNT005.htm(검색일: 2024년 1월 11일).

27) 김두환, “북한 과일 생산량의 80%는 사과,”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6>(검색일: 2023년 1월 11일).

28)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 사과 품종은 500여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북청, 송화, 붉은 칠월, 구월, 황주, 덕성, 허천3호, 금강, 남포2호 등이다. <http://www.tongilnews.com>(검색일: 2023년 1월 11일).

〈그림 13〉 과일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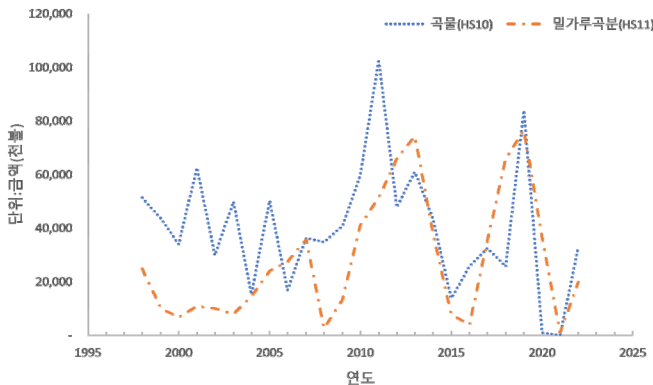
자료: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22) 자료를 토대로 필자 그림 작성.

이후 생산량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에서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로 생산 정상화를 강조했고, 이후 제8차 당대회에서 과수를 발전시키라고 주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곡류뿐만 아니라 육류, 어류, 채소류, 과일류 등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책 실현의 결과로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량이 안정되거나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의 파급효과로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곡류 위주에서 부식과 기호식품을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차 농산물인 주원료로의 공급증대로 다양한 기호식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가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김정은 시기 식품공급의 환경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 농산물의 수입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나 자체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일부 원료는 수입하는 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생산량이 부족한 곡물을 수입했는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는 북중 무역을 통한 곡물, 밀가루 곡분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곡물은 김정은 집권 초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까지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곡물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다. 밀가루 곡분의 수입 비중은 김정은 집권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밀가루 곡분은 북한 내 재배면적과 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

<그림 14> 북중 무역을 통한 곡물, 밀가루 곡분 수입금액



자료: 북한정보포털 자료,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kpTrade.do>(검색일: 2023년 11월 16일)를 토대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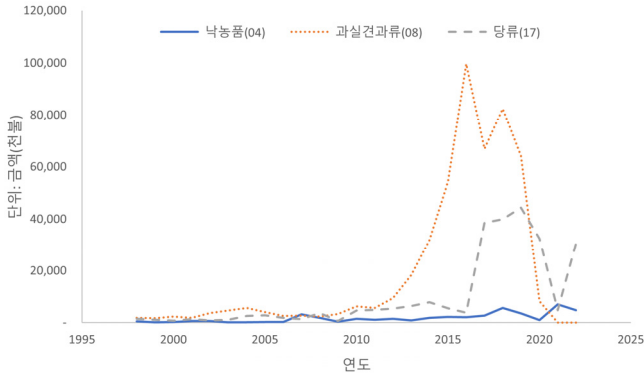
다.²⁹⁾ 이와 같은 곡물수입의 품목별구성은 쌀, 옥수수와 같은 주식 외에 식료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밀가루 수입량은 대북제재가 강화된 직후인 2018~2020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밀가루 수입량이 대폭 늘자 재배면적과 양을 늘리기 위한 농업생산구조 변화를 제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에서 논의한다. 밀가루 곡분의 경우에도 곡물과 비슷한 수입 양상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쌀보다 밀가루곡분을 더 많이 수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쌀은 950천 톤, 밀가루 곡분은 36,612천 톤을 수입해 밀가루 곡분 수요가 증가됨을 증명하고 있다. 밀가루 곡분은 식료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밀가루의 형태로 수입되는데, 빵·과자류의 가공식품류의 주원료(〈표 3〉)로 사용된다. 따라서 밀가루 수입은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와 내부 곡물 수요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15〉는 북중무역을 통한 낙농품, 과실견과류, 당류의 수입금액을 보여 주고 있다. 김정은 시기 과실견과류의 수입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사과 및 마르멜로의 수입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르멜로는 모과처럼 과육이 매우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서 생으로서는 도저히 못 먹기 때문에 과육만 따로 조리해서 잼, 젤리, 푸딩, 과실주 만들 때 쓰거나 껍질을 벗기고 구워 먹는다.³⁰⁾ 따라서 북한이 수입한 과실견과류는 기호식품의 식품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15년 이후 당류의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식품 내에 존재하는 당류는 물에 녹아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29) 이동걸, 『2020 북한의 산업Ⅲ』(서울: KDB산업은행, 2020), 141쪽.

30) 북한정보포털, <https://namu.wiki/w/%EB%A7%88%EB%A5%B4%EB%A9%9C%EB%A1%9C>(검색일: 2024년 5월 30일).

〈그림 15〉 북중 무역을 통한 낙농품, 과실견과류, 당류 수입금액



자료: 북한정보포털 자료,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kpTrade.do> (검색일: 2023년 11월 16일)를 토대로 필자 작성.

북한이 수입한 당류는 사탕수수, 기타의 당류, 설탕과자가 대표적으로 과자나 빵 등 단맛을 내는 식품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식품가공공업의 발달에 따라 당류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북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당류 양이 부족해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농품 수입은 주로 밀크와 크림(농축설탕 첨가) 및 버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낙농품도 과실견과류, 당류와 같이 과자, 빵 등 기호식품을 만드는 필수 원재료로 지속적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김일성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쌀과 옥수수 재배를 장려했으나 옥수수는 비료 투하량이 많은 작물로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³¹⁾ 김정일은 감자혁명을 통해 감자

를 주식으로 선택했다. 양강도 대홍단군을 거점으로 감자농사를 대규모로 지었고 감자가루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만들었지만 식량문제 해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3대 축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최근에는 쌀과 밀·보리 생산량을 증대시켜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려 했다. 이런 정책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밀가루 선호가 농업정책에 반영된 점도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배급이 끊기자 장마당을 통해 다양한 식품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고, 평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식품관에는 다양한 밀가루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선전용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도 즉석국수 등 다양한 밀가루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달라진 식품소비가 북한의 농업정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³²⁾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와 그 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여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위주로 바꾸어 농업생산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과 밀가공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밀·보리로 농업생산구조를 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밀·보리 생산량을 증가시켜 알곡작물 생산량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31) 북한의 작물별 시비 추천량 추정: 질소(N)-인(P)-칼륨(K) 성분으로 옥수수는 94-79-68kg/ha, 맥류는 130-59-49kg/ha이다.

32) “북한은 왜 밀가루를 강조하는가,” KBS, 2023.3.29., https://world.kbs.co.kr/specia/northkorea/contents/news/koreatoday_view.htm?lang=k&No=436627(검색일: 2024년 6월 2일).

〈표 6〉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1,000ha, 만 톤)

구분 연도	쌀		옥수수		서류		밀·보리류		콩류·잡곡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19	502	224	757	152	348	57	80	15	175	16
2020	502	202	757	151	348	54	80	16	175	17
2021	502	216	757	159	348	57	80	16	175	21
2022	502	207	757	157	348	49	80	18	175	20
2023	502	211	739	170	349	58	119	22	156	19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필자 정리.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알곡작물은 쌀과 옥수수로 농경지 비율³³⁾은 논 502천 ha(26%), 밭 1,408천 ha(74%)로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보리 재배면적을 늘려 알곡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표 6〉은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알곡생산구조 변화 이전에 밀·보리 재배면적은 80천 ha이고, 생산량은 15~16만 톤으로 식량작물 생산량의 약 3% 수준이었다. 그러나 알곡생산구조 변화 이후인 2023년 기준 밀·보리 재배면적은 119ha로 39ha 증가했고, 생산량도 6.3% 증가했다. 둘째, 쌀 소비의 대체재로 밀·보리를 활용하여 빵, 국수, 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밀·보리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식료품을 만들 수 있는 2차 산업인 경공업을 활성화하려는 경제정책이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경공업전선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주타격방향”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기초식품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와 의미를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33) 통계청, 『2023북한의 주요통계지표』(세종: 통계청, 2024), 67쪽.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밀가루의 수입이 어렵고, 밀가루의 수요가 증가하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자급자족으로 국내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식품가공공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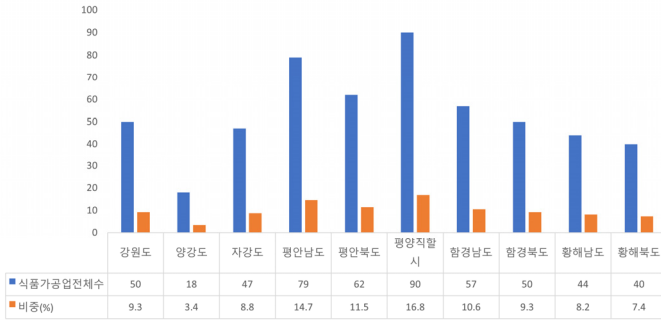
북한에서 식료품은 ‘음식물로 되는 재료와 그의 가공품’으로 정의³⁴⁾하고 있다. 즉, 다양한 주식물과 부식물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을 공업적 방법으로 가공·공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여성들의 가사를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식료품들은 식품가공공업을 통해 생산되는데, 북한에서 식품가공공업은 ‘음식물로 되는 재료를 가공하여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가공공업은 곡물·수산물·남새(야채)·과일·고기 가공, 당류·당과류·기름·장·주류 및 청량음료 생산, 조미료 가공 등 1차, 2차 가공 부문으로 되어 있다. 1차 식품가공업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자와 다른 식품공업의 원료로 공급하는 부문이고, 2차 식품가공업은 1차 식품공업의 생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3차 식품가공업은 1, 2차 식품공업의 생산물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는 부문인데, 북한의 식료공업은 주로 2차 가공으로 제한된다.³⁵⁾ 이렇듯 식품가공공업은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연계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 산업이다. <그림 16>은 2010년 이후 확인된 북한의 식품가공업 전체 수 및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³⁶⁾ 식품가공업 전체 수와 비중이 평양직할시가 90개소

34) 『조선대백과사전 프로그램: 식료품』(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35) 김영희, “북한 식료공업 실태와 전망,” 『글로벌 경제 이슈』, 10월호(2009), 95쪽.

36) 최지영·김수정·최은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서울:

〈그림 16〉 북한의 식품가공업 전체 수 및 비중(2010년 이후 확인기업)



자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생산과 유통실태』(2023), 136쪽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16.8%)으로 제일 크게 나타나 수도시민들에 대한 식품공급을 우선시 하여 당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은 평안남도 79개소(14.7%), 평안북도 62개소(11.5%), 양강도 18개소(3.4%)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지방공업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역별 균형 발전과 지역의 원천원료기지를 개발하여 식품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경제발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7〉은 식품 관련 기계류 수입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북한은 식품가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품과 관련된 기계설비, 자재 등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료품공업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³⁷⁾ 2015년에는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 등의 기존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무인화 공정을 도입하여 자동화를 추진하였고, 각 도·시·군에 위치한 기초식품공장 및 장

통일연구원, 2023), 136쪽.

37) 이경찬, “김정은 시대 북한 식료품공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45쪽.

〈그림 17〉 식품 관련 기계류 수입 추이



자료: 이경찬, 『김정은 시대 북한 식료품공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45쪽 인용.

공장의 경우 표준설계에 따른 생산공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³⁸⁾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5) 식당

북한에서 식당이란 ‘손님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을 가공하여 파는 사회급양망의 한 형태’이다.³⁹⁾ 식당은 주부식물을 위주로 가공하여 파는 사회급양의 기층 단위로 소매상업망의 구성부분이다. 북한에서 식당은 생산적 기능과 함께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생산적 기능은 음식물을 가공하는 측면이고, 상업적 기능은 가공된 음식물을 직접 팔며 그 자리에서 소비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당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공급하고 있어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언론보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 식당에 대한 기사는 과장된 선전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38) “지방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자,” 『로동신문』, 2020년 2월 23일.

39) 『조선대백과사전 프로그램: 식생활』(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한다. 북한의 식당 중 대표적인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위치한 배 모양의 음식점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3층 구조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2018년 7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양식에 성공하였다는 철갑상어 요리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이 방문하여 식사를 해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월급 수준을 생각한다면 음식값이 싸다고 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가정이 부업을 통해 돈을 벌고 외화로 돈 받는 식당보다는 훨씬 싸고 당국에서도 꽤나 신경 써서 운영하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이 꽤 찾는 식당이 되었다.⁴⁰⁾

〈그림 11〉 육류생산량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토끼 사육을 장려해 토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것을 증명하듯 토끼 고기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란봉일대에서 물씬 풍겨오는 봄의 정취를 느끼며 월향동지구에 이르면 <<월향2 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한채의 아담한 건물이 보인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요리는 토끼고기보신탕, 토막볶음, 토막졸임, 고기튀기, 토끼찜, 토끼곰 그리고 토끼고기회이다.

『로동신문』, 2019년 3월 28일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수산업에서 메기, 자라 등 내수면 양식을 강조했고, 이는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음식을 단순히 맛을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와는 식생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0)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C%80%EB%8F%99%EA%B0%95%EC%88%98%EC%82%B0%EB%AC%BC%EC%8B%9D%EB%8B%B9>(검색일: 2023년 11월 3일).

최근 옥류관에서는 자라불고기, 자라피술, 자라회, 자라탕, 자라튀기, 통자라찜, 자라죽을 비롯한 수십가지나 되는 자라요리들이 봉사되어 손님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간질환과 당뇨병, 허리병 등의 예방과 치료에 좋을뿐아니라 로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철갑상어로 구이와 찜, 회 등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조선의 오늘』, 2017년 10월 16일

반면, 북한의 식당에서 외국 음식도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업한지 8년째 되는 이 식당에서는 이탈리아의 이름난 요리인 삐짜와 쓰빠게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봉사하고있는데 특이한 이탈리아요리를 맛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2008년 개업당시 요리사들이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3개월동안 배우고와서 요리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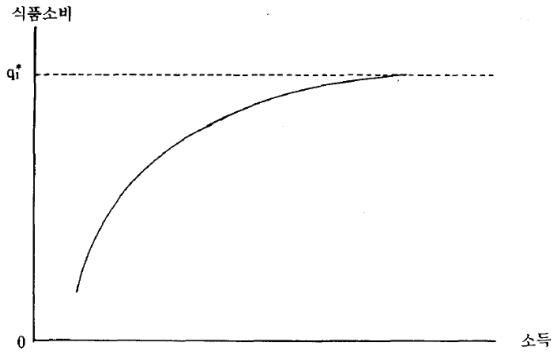
『조선의 오늘』, 2016년 2월 6일

4. 식품소비 환경변화

1)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변화

소비자가 식품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은 에너지의 섭취 수준, 식품의 맛, 형태, 기타 영양소 등 수많은 식품의 영양적, 비영양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 에너지는 소비자의 효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그림 18〉 소득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량 변화



자료: 소득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 변화분석(1995).

친다. 그러나 에너지를 일정 수준 이상 섭취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한계효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⁴¹⁾ 〈그림 18〉은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는 소비가 q_1^* 에 도달되기 이전까지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소비는 증대되지만 에너지의 포화상태인 q_1^* 에 도달된다면 식품소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²⁾ 남한의 경우 식품소비 구조에서 1980년대 이후 보리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쌀 소비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류 소비는 급격히 증대되었다.⁴³⁾ 이러한 현상의 부분적인 원인은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식품소비 변화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섭취에 따른 맛의 충족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섭취에 대한 한계효용이 컸던 1970

41) 사공용·최지현,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변화분석,” 『농업경제연구』, 제36호 (1995), 47쪽.

42) 위의 글, 52쪽.

43) 위의 글, 54쪽.

년대까지만 해도 에너지를 가장 싸게 섭취할 수 있었던 보리에 대한 지출이 증대되어 보리의 소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소비구조하에서는 에너지 섭취에 따른 효용을 높이는 대신 다른 식품(쌀과 육류)의 맛에 대한 효용을 희생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에너지 섭취량이 증대되면서 보리의 소비는 감소하고 쌀의 소비는 증대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득 증대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함에 따라 쌀이 육류로 대체되었다. 44)

2) 가계소득과 식품 소비지출 변화

(1) 가계소득

북한에서 소득이란 ‘산노동의 지출에 의하여 조성되어 일정한 사회 집단, 개별적 사람에게 새로 획득되는 생산물 부분 또는 그 가치이며 소득의 원천은 산노동 지출의 결과로서 국민소득이다. 국민소득은 총 소득을 형성하며, 그 가운데서 사회를 위한 노동 또는 잉여노동은 순소득을 형성한다’45)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소

〈표 7〉 북한 주민의 소득 원천

소득원천	내용
1) 직 장	직장에서 받는 월급 또는 직장에서 받는 배급
2) 장 사	장마당 등을 통해 장사를 해서 번 소득
3) 부 업	부업을 해서 번 소득(소토지, 산나물 채취, 부업축산 등)
4) 수 급	국가로부터 받은 수급액
5) 송 금	외국(남한 등)의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송금

자료: 민기재 외, “북한 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2021), 필자 재작성.

44) 위의 글, 54쪽.

45)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소득』(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표 8〉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소득 원천

(단위: 빈도, 북한 만 원/월, %)

분류	직장	장사	부업	수급	송금
가구빈도수	22	25	8	3	11
평균소득원천	14.1	186.7	11.9	0.13	98.8
비율	5.03	75.76	1.55	0.01	17.65

자료: 조성은 외,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13쪽 활용 필자 제작성.

득원천을 살펴보면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 직장에서 얻는 소득원천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배급이다. 그리고 장마당 등을 통해 장사를 해서 번 소득이고, 부업은 소토지, 산나물 채취, 부업축산 등을 통해 번 소득이다. 국가로부터 받은 수급액과 외국(남한, 일본 등)의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송금이 있다.

〈표 8〉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소득 원천으로 소득 가구 빈도수와 소득원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면 장사가 25가구로 75.76%로 제일 높고, 송금이 11가구로 17.65%로 나타나⁴⁶⁾ 10명중 7명이 장사를 통해 소득원천을 확보하고 있다. 직장의 가구 수가 장사 다음으로 높은 22가구를 차지하지만 소득원천 비율은 5.03%로 낮게 나타났다. 수급은 0.01%로 제일 낮게 나타나 사회주의 국가 사회보장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계산하여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경제를 기본경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소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직장에서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46) 민기재·현인에·김효주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54쪽.

〈표 9〉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소득 및 지출 평균값

(단위: 월)

구분		소득		객관적 지출과 주관적 지출		
		송금 제외 월소득	송금 포함 월소득	가구 월지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빚듯하게 생활하자면
평균값	북한 (만 원)	145	168.9	107.1	230.3	59.6
	한국(원)	199,375	232,238	147,263	316,663	81,950

자료: 조성은 외,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방안 연구』, 214쪽 인용 필자 제작성.

이르자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경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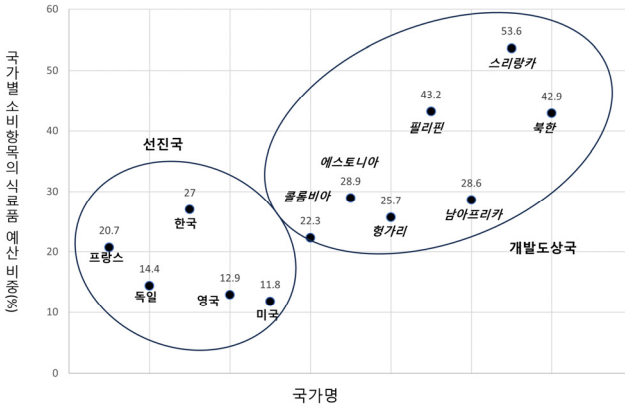
〈표 9〉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⁴⁷⁾ 송금을 제외한 월소득은 145만 원(199,375원/한국원)이고, 가구 월 지출은 107.1만 원(232,238원/한국원)이다. 북한에서 넉넉하게 생활하려면 230.3만 원으로 월 소득 145만 원에서 85.3만 원이 부족하다. 송금을 제외한 월 소득 145만 원을 벌려면 장사만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직장이거나 부업을 통해서도 가구의 월 107.1만 원을 지출할 수 없어 소득 계층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식품 소비지출

가계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식료품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이다. 소비에 있어 식량이 갖는 중요성은 국가의 가계소비 패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19〉는 국가별 소비 항목의 식료품 예산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선진국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평균 18.5%였고, 개발도상국은 평균 33%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선

47) 조성은 외,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방안 연구』, 214쪽.

〈그림 19〉 국가별 소비항목의 식료품 예산 비중



자료: 최지영 외, 『김정은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 85쪽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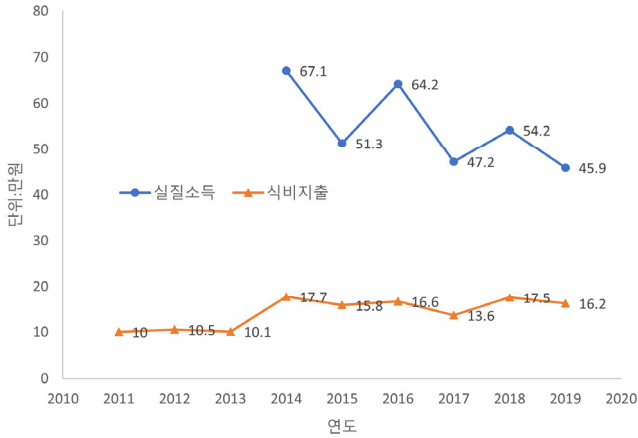
진국들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주거나 의료·교육·여가에 대한 소비를 늘려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 패턴이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이 가계소비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⁸⁾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식비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⁴⁹⁾에 따르면 가계지출 중 식비의 비중은 중간 값이 40%로 추산되며 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평균 식비 지출 비중도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4년 41%, 2015~2017년 43.0%, 2018~2020년 44.7%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식비 지출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도 증가했을 것으로 역추정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소득증대에 따른 식품소비량 변화 이론을 증명하

48) 최지영 외, 『김정은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 83~84쪽.

49)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109쪽.

〈그림 20〉 1인당 월평균 소득 및 식비 지출



자료: 『북한사회변동 2012-2020』, 119쪽.

고 있다. 다만, 식량배급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배급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북한 가계의 실제 식량소비 비중을 다소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⁵⁰⁾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엥겔지수는 30% 이하로 나타나고 50% 이상은 후진국으로 분류한다. 김정은 시기 식비 지출은 평균 42.9%로 나타나 중국의 2000년대의 30~40%보다 약간 높고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4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0〉은 1인당 월평균 소득 및 식비 지출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득에 대한 식비 지출 비율은 25~35%로 나타났다.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이 201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주민들의 실질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0)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109쪽.

그러나 식비 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식비를 줄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경제가 불황일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일치한다.⁵¹⁾

김정은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소비 지출 행태를 연구한 결과⁵²⁾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곡물 주식(쌀, 옥수수) 구매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부식의 구매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부식을 고기, 수산물, 과일, 기호식품(담배, 술)로 세부화해서 조사한 결과 고기와 수산물 구매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담배와 술 기호식품은 2014년 이후에, 과일이나 채소는 2016년과 2017에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김정은 시기 북한의 중산층을 연구한 자료⁵³⁾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식품 지출 총액을 볼 때, 채소 및 과일[12,000원(남한 원)] > 육류·낙농품·어개류[9,000원(남한 원)] >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7,400원(남한 원)] > 곡류 및 식빵[6,900원(남한 원)]의 순으로 나타나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들은 강냉이나 죽으로 생계를 연명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경제에서 가계소득이 증가되어 식품소비가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118~119쪽.

52) 홍혜림, “김정은시대 가계소비지출 추세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2~45쪽.

53) 정은미·박소혜·이종민, 『북한의 중산층』(서울: 통일연구원, 2022), 61쪽.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식생활과 관련된 국내 통계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식생활의 변화 원인을 식품공급 측면과 식품소비 환경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는 주식의 경우 하루 식사 횟수는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하루 세 끼 이상 섭취가 증가했고, 주식의 구성은 주로 쌀이 차지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인 고기 섭취 비율이 김정은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했고,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여 이탈주민의 육류 소비에서 돼지고기 섭취 경험률이 많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간식인 빵·과자류, 낙농품과 기호식품인 음료의 소비 경험률도 김정은 시기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다양한 식료품 공급으로 식품소비가 개선되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김정은 집권 이후 10여 년간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배경에는 북한의 가공식품류의 생산이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의 곡물류와 식품류 등의 시장 평균가격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에 영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장마당과 쌀 가격 등을 통제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한 것도 식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집권 후반기 외식 경험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외식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주민들도 소득탄력성,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의 식생활 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공급 환경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곡류뿐만 아니라 육류, 어류, 채소류, 과일류 등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책 실현의 결과로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량이 안정되거나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의 파급효과로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곡류 위주에서 부식과 기호식품을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차 농산물인 주원료로의 공급 증대로 다양한 기호식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가공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식품공급의 환경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김정은 시기 밀가루곡분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빵·과자류 등 식품가공공업의 주원료로서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와 내부 곡물 수요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21년 김정은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 벼와 밀·보리 농사를 강조했는데, 알곡작물생산량 증대와 쌀 소비의 대체재로 다양한 먹거리 제공, 그리고 경공업 활성화와 국제 곡물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급자족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식품가공공업이 발전했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식품생산으로 식생활 개선과 산업 간의 연계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식품 공장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김정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지방공업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의 원천원료기지를 개발하여 식품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급양은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 등 인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급양인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공급

하고 있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은 시기 식품소비환경변화에서 경제변화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식생활을 위한 소비 지출도 증가했을 것으로 역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가계소득은 고난의 행군 이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마당을 활용했는데,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들의 소득원천은 비공식경제인 장마당에서 장사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김정은 시기 식비 지출이 조금씩 증가했고, 앵겔지수도 42.9%로 조사되어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실태는 주식인 곡물 위주에서 벗어나 부식과 간식, 기호식품으로 식생활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큰 변화 원인은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입이 증대되면서 시장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비공식경제인 시장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구매력을 향상시켜 식품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다양한 식품소비로 식생활이 더욱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량 산정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 투고: 2024.06.27. / 수정: 2024.07.30. / 채택일: 2024.08.04.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경제사전 2: 소득』(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대일,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01 민속학편: 조선식생활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5).

『조선대백과사전 프로그램: 식생활』(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2) 논문

최석을, “어린이 식료품의 공급을 통한 생산과 수요의 맞물림,” 『경제연구』, 제4호 (2017).

_____, “어린이식료공장 자체원료기지의 조성,” 『경제연구』, 제4호(2019).

3) 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8일.

“지방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자,” 『로동신문』, 2020년 2월 23일.

“2015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식료품위생법,” 『북한법령집 下』(서울: 국가정보원, 2022).

이계임·김상효·허성윤, 『농업전망 2017: 식품소비 구조변화와 트렌드 전망』(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이동걸, 『2020 북한의 산업Ⅲ』(서울: KDB산업은행, 2020).

이순형·진미정·나종연·이유리·윤지현·김희정·최윤정·윤소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둘

리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해 들은 북한의 생활문화』(서울: 파워북, 2020).
 정은미·박소혜·이종민, 『북한의 중산층』(서울: 통일연구원, 2022).
 조성은 외,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방안 연구』(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20).
 최재현, 『북한 샘플사업 현황 및 전망』(서울: KDB산업은행, 2020).
 최지영·김수정·최은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서울: 통일
 연구원, 2023).
 통계청, 『2022북한의 주요통계지표』(세종: 통계청, 2023).
 ———, 『2023북한의 주요통계지표』(세종: 통계청, 2024).
 통일부·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서울: 통일
 부, 20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KREI북한농업동향』(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III』(서울: KDB산업은행, 2020).

2) 논문

김소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7).
 김영희, “북한 식료공업 실태와 전망,” 『글로벌 경제 이슈』, 10월호(2009).
 김에슬·조성은,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보건복지포럼』, 통권 310호(2022),
 38~52쪽.
 민기채·현인에·김효주, “북한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98호
 (2021), 50~63쪽.
 사공용·최지현,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변화분석,” 『농업경제연구』, 제36권 1호
 (1995), 1047~1062쪽.
 이경찬, “김정은 시대 북한 식료품공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21).
 조성은,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8월호(2019).
 최은경·조미숙, “『조선녀성』을 통해 본 북한의 식생활 연구: 1999~2017년 식생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3호(2019), 255~267쪽.
 홍혜림, “김정은시대 가계소비지출 추세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9).

3) 신문

김두환, “북한 과일 생산량의 80%는 사과”,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6>(검색일: 2023년 1월 11일).

4) 기타 자료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C%80%EB%8F%99%EA%B0%95%EC%88%98%EC%82%B0%EB%AC%BC%EC%8B%9D%EB%8B%B9>(검색일: 2023년 11월 3일).

농촌진흥청, https://www.rda.go.kr/board/board.do?mode=view&prgId=day_farmprmninfoEntry&dataNo=100000792230(검색일: 2024년 3월 8일).

“북한은 왜 밀가루를 강조하는가,” KBS, 2023.3.29., https://world.kbs.co.kr/specia/northkorea/contents/news/koreatoday_view.htm?lang=k&No=436627(검색일: 2024년 6월 2일).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식생활교육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008&ancYnChk=0#0000>(검색일: 2023년 8월 13일).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files/anal/ANL011/ANL011_TNT005.htm(검색일: 2024년 1월 11일).

Changes in Dietary Patterns during the Kim Jong Un Era Focusing on Food Consumption

Kim, Kwan H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food consumption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has transformed in the approximately 30 years since the ‘Arduous March’ and particularly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The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using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specialized sources related to North Korea’s dietary habi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residents have shifted, with nutritional intake coming from a variety of food source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taple grains such as rice and corn. This shift indicates that North Korean residents’ diets have evolved from being centered around staple grains to including side dishes, snacks, and preferred foods. The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change include an increase in the supply and importation of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which have stabilized market prices on the supply side. On the demand side, the rise in residents’ incomes, driven by marketization in the informal economy, has

enhanced purchasing power, leading to more active food consumption. This finding aligns with the theory that food consumption increases as income rises.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income disparities between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persist. It is projected that as the income of North Korean residents continues to rise, their food consumption patterns will further diversify. This provides new insights into estimating North Korea's food shortages and addressing food security issues.

Keywords: Kim Jong Un, dietary life, food consumption, food supply,
income increase